

지역 소식통

정읍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시 10% 감면

정읍시가 경유 이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 산납 시 10%를 감면해준다.

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을 통해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자는 10%를 감면을 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시는 자금 납부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청 대상 차량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 사용 자동차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인지훈련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임인년 새해에도 지난 10월을 시작으로 오는 2월 중순까지 총 8회기로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개별학습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력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안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건강취약지역인 번산면 합구·자마마을과 진서면 석포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 체조를 안내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7가지 인지영역의 문제 유형 학습지를 제공한다.

또 치매인지심별검사와 노인 우울척도 및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 전과 후를 비교하고, 선별검사를 통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코로나나 감염 방지를 위해 3차 추가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을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치매 예방 및 인지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 '기대'

정읍시, 전 시민 설 명절 이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읍시가 설 명절 이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시의회 의장은 11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유 시장과 조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전 시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2020년 5월, 2021년 1월에 이은 세 번째 지원이다.

새해 시작과 함께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읍시의회와 협의해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0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 둔 10만7,000여 명이 해당되며, 재난예비비 약 10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설 연휴 이전 최대한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6월 30일까지 정읍지역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와 관련 두 차례에 걸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214억 원과 정부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6,500명에게 지원(1인당 25만원)한 16억 5,000만원,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107억원 등 시 자체적으로 337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그간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3차 지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기본소득(20.5~7월)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기간과 비교 시 약 31억원의 카드 사용액이 증가해 지역경제 효과가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재난기본소득(21.3~6월)도 지급 이전 달(21.1~2월)과 비교 시 1차 재난기본소득 소비 이후 침체하고 있던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AI·구제역·ASF 등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동물 복지향상을 위해 관내 수의사 6명을 2022년 고창군 공수의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

고창군, 공수의 위촉·선제적 가축방역업무 추진

고창군이 AI·구제역·ASF 등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동물 복지향상을 위해 관내 수의사 6명을 2022년 고창군 공수의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고창군수, 산남식 연합동물병원장을 비롯한 관내 개업 수의사 6명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코로나19 확산방지 기본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공수의는 1년간 담당 공수의 지역의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동물의 진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브루셀라병 및 결핵 혈청검사를 위한 채혈, 고병원성 AI 간이검사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업무 등 관내 가축방역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전염병별 감수성 동물에 대한 순회 예방과 전염병 발생 신고 접수 및 1차 확인의 역할도 맡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발생지역 내 살처분 예방접종 및 예찰활동을 하게 된다.

고창군수는 "고병원성 AI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공수의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고창군,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

고창군이 올해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생장려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고창군은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올해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첫째·둘째 등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소멸된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군 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내 분만부인과 분만시 분만진료비 지원, 산후건강관리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고창군수는 "새해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고창의 희망을 안겨준 아이들의 출생을 모두 축하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며 "앞으로 하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책을 발굴·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통합 온라인쇼핑몰 '높을고창몰' 입점 업체 모집

고창군 통합 온라인쇼핑몰 '높을고창몰'에서 신규 입점 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높을고창몰은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시장 축소 및 온라인시장 확대에 따라 소비자의 비대면 소비심리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고창군 지역 온라인쇼핑몰로 지난해 4월 정식 운영을 시작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높을고창몰은 고창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우체국쇼핑,

메가마트, 두타몰, NS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 최초 메타버스 쇼핑몰 GFLIX도 오픈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 높을고창몰 입점업체 모집은 1월21일까지 진행되고, 업체별 5개 품목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입점 신청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군에서 생산, 가공된 상품에 대한 합법적 통신판매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면 누구나 입점 신청할 수 있다. 입점 신청서 등은 고창군청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코로나19로 커지는 온라인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한 높을고창몰이 서서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가입점 업체 모집을 통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우수기관 표창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구)는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96종 987대의 농기계를 갖춘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상서본소, 남부권, 동부권)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50% 인하여 1억 4,00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주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사업비(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표창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발자물 재배단체에 2억원의 농기계를 장기임대 하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 공고 중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 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팀(☎ 063-580-3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해 활용함으로써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